

제1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뉴스 기자의 방송 보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해 PC방에서 일하던 학생 이 모 군은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이 모 군은 해고되기 전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도 임금되길 기다렸지만, 무소식이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 군(임금 체불 피해자): 삼십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다리면 줄 줄 알고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돈이 없으니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모 군의 고용주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모 군 같은 소액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부 업주들이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근로 계약서를 써 주지 않거나, 소액이니까 일단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고 보자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시간과 휴가 일수,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당 총 열 다섯 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하려는 업체가 불량 업체가 아닌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곳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신분증이나 통장 등을 요구하는 업체도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 노동청에 신고해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구조 지원 제도’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임금 체불을 비롯해 근로 시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 뉴스 ○○○였습니다.

1. 뉴스 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적 진술로 방송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시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④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관련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방송의 중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앞서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방송 보도의 사전 계획서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성	내용
제목	학생 아르바이트 임금까지 체불... “신고하세요.”
리드	악덕 고용주에게 피해를 입은 한 학생의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함. ㉠
본문	1. 학생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악덕 업주들의 횡포 ㉡
	2.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1)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2) 아르바이트 업체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3. 임금 체불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1) 임금 체불 피해 관련 소송의 절차 ㉤
	(2) 임금 체불 피해 문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다음은 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올린 댓글이다. 방송 내용을 고려하여 시청자들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월 ○일 방송에 대한 의견 남겨 주세요.

ㄴ 시청자1: 저도 지난 겨울방학 때 했던 아르바이트에 대한 급여를 여태 받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을 찾아가서 상담해 봐야겠어요.

ㄴ 시청자2: 구직 시 꼭 근로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ㄴ 시청자3: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봤는데, 정작 그 내용은 방송에 안 나왔네요.

ㄴ 시청자4: 최근에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친절하게 대처 방법을 안내해 주셔서 근로 계약서를 제대로 수정했어요.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꼭 온라인 상담을 활용해 보세요.

ㄴ 시청자5: 그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면서 제대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기성세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야겠어요.

- ① ‘시청자1’은 방송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군.
- ② ‘시청자2’는 방송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군.
- ③ ‘시청자3’은 자신이 방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정보와 관련해 방송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군.
- ④ ‘시청자4’는 방송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방송에서 소개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군.
- ⑤ ‘시청자5’는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과거 행위를 반성하고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군.

[4~7] (가)는 교지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표제] **문학과 과학을 배우는 교과 융합 답사, 영월에서 진행돼**

[전문] 지난 5월 4일에 '무진기행' 동아리 학생들이 교과 융합 답사를 다녀왔다.

[본문] 문학 기행 동아리 '무진기행'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과 융합 답사는 동아리원과, 참가를 신청한 학생들까지 총 30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이 머물렀던 '청령포'와 단종이 묻혀 있는 '장릉', 영월 지역 강물의 흐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선돌'과 병자호란 때 백성들이 몸을 피했던 '고씨 동굴'을 방문했다. 그리고 방랑 시인 김삿갓에 관한 문학관을 둘러보았는데, 이렇게 선인들이 남긴 역사와 문학의 흔적을 찾는 활동을 통해 영월 지역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야간에는 융합 답사 참가자들이 봉래산 정상에 위치한 '별마로 천문대'를 방문하여 봄철 별자리를 대표하는 사자자리와 처녀자리 등을 알아보는 교육을 받고,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여 직접 별자리를 관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봉래산 정상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에 적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다. 한 참가자는 천문대에서 바라본 영월 밤하늘의 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웠다며 감탄했다.

(나)

학생 1: ㉠ 처음으로 작성하는 기사문이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조언 좀 해 줄 수 있어?

학생 2: 응. 우선 표제부터 살펴볼게. 표제에서 '교과 융합 답사'라는 행사를 언급한 것은 괜찮지만, 행사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점은 아쉬운 것 같아.

학생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생 3: 영월에는 천문대와 문학관, 그리고 역사적인 다양한 명소가 있잖아? 이러한 '영월'이라는 고장의 특징을 행사의 취지와 관련지어 언급하는 건 어때?

학생 2: 기사 내용을 손쉽게 파악하게 한다는 표제의 목적과 표제에 할애된 분량을 고려한다면 역사적 명소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학생 1: 그럼 천문대와 문학관이 있는 영월의 지역적 특징을 활용하여 표제를 작성해 볼게. 전문은 어때?

학생 2: ㉡ 답사에 대한 기사니까 전문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확실히 밝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답사를 간 동아리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학생 3: 그리고 융합 답사를 진행한 동아리와 융합 답사에 참가한 학생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A]

학생 2: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본문과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니 전문에는 융합 답사를 주관한 동아리만 언급하는 게 좋겠어.

학생 1: 알았어. 전문은 그렇게 수정할게.

학생 2: 그래, 그럼 본문을 살펴보자.

학생 1: 이번 융합 답사 때 방문했던 곳과 그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작성했는데, 어때?

학생 3: 여정에 대한 감상은 답사 장소의 특징이 드러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 답사 장소 위주

로만 소개를 해서 내용이 단조롭고, 중간에는 기사문의 흐름과 상관없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

학생 1: 기사문의 흐름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감상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게.

학생 2: 답사했던 장소를 모두 소개하는 것보다는 수정할 표제와 관련된 장소들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어때? [B]

학생 3: 영월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답사 때 방문했던 장소는 모두 언급했으면 좋겠어. 대신 현재 글은 표제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알았어. 그럼 그 부분도 수정해 올게.

학생 2: 참, '동강'은 영월을 대표하는 강이니까 '선돌'을 소개할 때 밝혀 주면 좋겠어. 그리고 백성들이 '고씨 동굴'로 몸을 피했던 건 임진왜란이야. 사실에 맞게 수정해 줘.

학생 1: 그렇게. 확인해 보지 않아서 미안해.

학생 2: ㉣ 그리고 지난번에 협의할 때 본문 마지막에 답사 취지를 소개하기로 하지 않았어?

학생 1: 아, 맞아. 그러기로 했었는데, 잊어버렸네. 선생님 인터뷰도 넣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넣었고.

학생 3: 그럼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답사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

학생 2: 답사 이후 진행될 관련 행사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1: ㉤ 현재의 초고만으로도 분량이 많은데, 추가로 작성할 양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 괜찮을까?

학생 3: 수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초고 쓰느라 고생 많았어.

4. '학생 1'이 (나)를 참고하여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표제 수정하기

→ '시(時)와 별이 흐르는 고장, 영월에서 교과 융합 답사 진행돼'로 수정해야겠군. ㉠

○ 전문 수정하기

→ '지난 5월 4일에 우리 학교의 문학 기행 동아리 '무진기행' 학생들이 강원도 영월로 교과 융합 답사를 다녀왔다.'로 수정해야겠군. ㉡

○ 본문 수정하기

→ 첫째 문단 두 번째 문장은 '~영월을 대표하는 강인 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선돌'과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몸을 피했던 '고씨 동굴'을 방문했다.'로 고쳐야겠군. ㉢

→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은 '그리고 조선 시대 후기의 방랑 시인 김병언의 작품과 행적을 소개하는 '김삿갓 문학관'을 둘러보며 융합 답사 지역으로 영월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로 수정해야겠군. ㉣

→ 둘째 문단에서 '한편 봉래산 정상은 ~ 찾는 장소이다.'라는 문장은 삭제해야겠군.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이번 답사에 신청한 학생이 많았음에도 인원 제한으로 모두 함께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밝히며, 이후 진행될 제2차 교과 융합 답사에는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②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답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람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5월 27일부터 진행되는 답사 감상 UCC 제작 대회에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 ③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이 생소하게만 여겼던 영월 지역을 이번 답사를 통해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여 보람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영월 지역 홍보 UCC 제작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④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라고 밝히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답사를 함께 진행해 준 동아리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 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문학, 과학, 역사 등의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융합 답사를 동아리 학생들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곧 답사 보고서 작성 대회가 진행될 것임을 안내해 주었다.

6.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사문 작성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유무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② ㉡: 기사문의 성격을 언급하며 상대가 작성한 글에 보충할 내용이 있음을 환기하는 발화이다.
- ③ ㉢: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며 기사문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하는 발화이다.
- ④ ㉣: 사전에 협의한 기사문 작성 계획을 언급하며 해당 계획이 현재의 기사문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발화이다.
- ⑤ ㉤: 글의 분량 문제를 언급하며 상대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7. [A], [B]의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 ‘학생 3’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며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을,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의견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고,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3’이 말한 의견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선정하여 학급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 … ㉡
-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을 접하지 못한,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최근 ㉠ “미세 플라스틱이 프랑스산 천일염에서는 100g당 242개, 국내산 천일염에서는 100g당 28개, 중국산 천일염에서는 100g당 17개가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더 큰 문제는 ㉡ 미세 플라스틱이 천일염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략)…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 또 다른 오염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되어 함께 인체로 유입된다는 사실도 그 유해성을 더하고 있다. …(중략)… 그런데 ㉣ 미세 플라스틱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건축용품, 농업용 비료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최근에는 ㉤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 환경 단체 학술지 『○○○』 -

(다) 학생의 글

최근 한 연구를 통해 외국산 천일염뿐만 아니라 국내산 천일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국민 1명이 매년 먹는 소금의 추정량이 3.5kg이므로, 그 3.5kg을 다 천일염으로 먹는다고 가정하면 1명이 매년 500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을 통해 섭취하는 셈이라고 한다.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5mm 이하까지 쪼개진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플라스틱은 고분자 물질이라서 원래 잘 분해되지 않지만 자연에서 풍화 작용이나 광분해에 의해 한번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쪼개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다 보면 밀가루처럼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와 같이 쪼개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나노 사이즈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천일염에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 중금속처럼 미세 플라스틱류도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음식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나 수도 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지속 가능 기술 센터(ISTC)의 연구진이 일리노이 주의 우물 17곳의 지하수 샘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16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한다.

플라스틱은 주위의 다양한 물질을 끌어당겨 흡착시키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수중의 미세 플라스틱은 깨끗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붙이고 있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섭취하면 흡착된 오염 물질들도 함께 체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세 플라스틱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 물질을 함께 인체로 유입 [A] 시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한번 인체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이 이후 체외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계속하여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이 누적되면 당연히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 규제 법안’ 제정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에 대한 규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영국은 2016년부터 면도용 거품과 치약, 샤워 젤 등 일부 생활용품과 화장품 제조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에서는 화장품, 세정제 등의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페인트, 광택제, 코팅제를 포함한 건축용품과 농업용 비료까지 그 범위 및 규모를 확장하여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와 더불어 개개인이 환경 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량을 줄여야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더 이상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반도 면적의 7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 섬이 세계의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미세 플라스틱의 개념을 언급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② ㉠을 고려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로 유입되기 쉬운 이유를 설명한다.
- ③ ㉡을 고려해,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하여 인체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 ④ ㉢을 고려해,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안을 제시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 ⑤ ㉣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활용하여,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체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② ㉡의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 ③ ㉢의 이유를 밝힘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였다.
- ④ ㉠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⑤ ㉣의 배경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환경 캠페인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다른 오염 물질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이 더욱 위험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 환경공학과 교수 ○○○

- ①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섭취량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고 보아야 한다.
- ②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해도 좋을 상황이다.
- ③ 미세 플라스틱의 부정적 영향을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제시하여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미세 플라스틱은 다른 오염 물질과 함께 인체로 유입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 ⑤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물질을 흡착시킨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11.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도라지꽃이 빛깔도 곱게 피었다.
- ㉡ 동생이 색종이로 만든 쟁반을 어머니께 선물했다.
- ㉢ 나는 어제 친구로부터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았다.

- ① ㉠의 ‘곱게’와 ‘피었다’는 각각 다른 주어의 서술어이군.
- ② ㉡의 ‘쟁반을’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이군.
- ③ ㉠의 안긴문장은 서술어를, ㉡의 안긴문장은 부사어를 수식하는군.
- ④ ㉠의 ‘빛깔도’와 ㉢의 ‘정성이’는 모두 안긴문장의 주어이군.
- ⑤ ㉡의 ‘선물했다’와 ㉢의 ‘받았다’는 모두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군.

[12~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끝 자리에 들어가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의 앞에 들어간다.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어말 어미는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으며, 둘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어말 어미는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맺어 주는 어미이다. 연결 어미는 문장을 연결하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가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또 다른 기능으로 바꾸어 주는 어미로 명사형 전성 어미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등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는 어미의 형태나 활용 양상이 현대 국어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명사형 전성 어미를 들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으)ㄴ’, ‘-기’가 쓰이지만,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옵/-옵’이 쓰였다. 그 구체적인 활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용언 어간의 끝음절에 양성 모음이 왔을 때에는 ‘-옵’이, 음성 모음이 왔을 때에는 ‘-옵’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막다’는 ‘마곰’으로, ‘먹다’는 ‘머곰’으로 각각 명사화되었다. 그런데 어간이 ‘·’나 ‘-’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와 ‘-’가 탈락된 후 ‘-옵/-옵’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퓌다(타다)’의 명사형이 ‘툼’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어간이 ‘ㅏ’나 ‘ㅑ’ 또는 이중 모음 ‘ㅑ, ㅑ, ㅑ, ㅑ’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에는 ‘-옵/-옵’ 대신 ‘ㄴ’만 결합되었다. 이에 따라 ‘오다’의 명사형은 ‘오옵’이 아니라 ‘오’로 나타났다. 한편 어간의 끝음절이 중성 모음 ‘ㅣ’로 끝난 경우에는 ‘-옵’과 ‘-옵’이 모두 사용될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ㅣ’와 ‘-옵’ 또는 ‘-옵’이 축약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어간이 ‘ㅑ, ㅑ, ㅑ, ㅑ’를 제외한 ‘ㅣ(j)’계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에는 명사형 어미 ‘-옵/-옵’에 ‘ㅣ’ 모음 순행 동화가 일어났다. 이는 중세 문헌에 ‘ᄃᆞᆫ치다(가르치다)’의 명사형이 ‘ᄃᆞᆫ춤’으로, ‘ᄃᆞᆫ다(생각하다)’의 명사형이 ‘ᄃᆞᆫ춤’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A]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가) 이 음식을 먹어 보았다.
- (나) 피곤해서 불을 켜 채로 잠이 들었다.
- (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로구나.
- (라) 나도 너와 함께 음악을 듣고 싶다.
- (마)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 ① (가): 어말 어미는 ‘먹어’의 ‘-어’와 ‘보았다’의 ‘-다’가 사용되었군.
- ② (나): 선어말 어미는 ‘들었다’의 ‘-었-’이 사용되었군.
- ③ (다): 종결 어미는 ‘아니로구나’의 ‘-로구나’가 사용되었군.
- ④ (라): 연결 어미는 ‘듣고’의 ‘-고’가 사용되었군.
- ⑤ (마): 전성 어미는 ‘준비하기가’의 ‘-기’와 ‘쉽지’의 ‘-지’가 사용되었군.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탐구 과제]

○ 중세 국어에서 다음 단어의 명사형은 각각 무엇일지 알아보자.

- 발다(뵤다)의 어간 ‘발-’
- 혀다(켜다)의 어간 ‘혀-’
- 쓰다(쓰다)의 어간 ‘쓰-’
- 쫓다(쫓다)의 어간 ‘쫓-’
- 버히다(베다)의 어간 ‘버히-’

+

‘-옵/-옵’

- ① ‘발다’의 명사형은 ‘바툼’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② ‘혀다’의 명사형은 ‘혀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③ ‘쓰다’의 명사형은 ‘툼’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④ ‘쫓다’의 명사형은 ‘툼’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⑤ ‘버히다’의 명사형은 ‘버흠’ 또는 ‘버흠’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14.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저번 시간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 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을 배워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문장의 ㉠~㉣ 중에서 하나를 골라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 말해 보고 이에 해당하는 다른 예를 두 개씩 들어 봅시다.

- 가뭄이 들어 ㉠ 고추밭이[고추바치] 모두 말랐다.
- 간식이 나와 아이들을 ㉡ 굶기지[굶기지] 않았다.
- 큰 집으로 이사한 후 나는 ㉢ 독방을[독뽕을] 썼다.
- 우리 집은 ㉣ 맏누이가[만누이가] 가장 노릇을 한다.
- 그는 짐을 들고 가다가 균형을 ㉤ 잃고[일코] 넘어졌다.

학 생: _____ [가] _____

- ① ㉠은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땀받이’, ‘밝히다’ 등이 있습니다.
- ② ㉡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옹기다’, ‘닭은꼴’ 등이 있습니다.
- ③ ㉢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일컫다’, ‘꿈같이’ 등이 있습니다.
- ④ ㉣은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답안지’, ‘속눈썹’ 등이 있습니다.
- ⑤ ㉤은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다른 예로 ‘곱하다’, ‘점잖다’ 등이 있습니다.

15.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큼 [I] 「㉠」

- ① (주로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
- ② (주로 어미 ‘-은, -는, -던’ 뒤에 쓰여)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 _____ ㉡.

[II] 「조사」 (㉢) 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나도 당신만큼 할 수 있다.

유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의존 명사’이다.
② ㉡에는 ‘검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히 준비해.’가 들어갈 수 있다.
③ ㉢에 들어갈 말은 ‘체언’이다.
④ ㉣에 들어갈 말은 ‘보조사’이다.
⑤ ㉤에는 ‘만치’가 들어갈 수 있다.

[16~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동 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 소유 관계에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몫을 ‘지분(持分)’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공동 소유자들의 결합 관계와 지분의 행사 및 처분·변경 방법 등에 따라 공동 소유의 종류를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기부 등본을 통해 공동 소유 관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공유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자동차나 집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이 일정한 비율의 지분으로 나누어 ㉡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물건을 공유하는 사람인 공유자들 사이에는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어도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물건이 동산*일 경우 공유자는 공유의 등기*만 하면 되지만, 물건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함께 해야 한다.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유물에 대해 공유자들이 균등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을 분할하자고 요구해서 공유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합유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두 명 이상이 조합이나 동업의 형태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동 조합이나 여러 사람이 동업하여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가 합유의 대표적인 예이다. 합유 재산을 합유자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소유에 대한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며, 그 명의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취득한 것

도 무효가 된다. 합유자는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자기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처분할 수 있다. 또한 합유자는 합유 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합유 지분의 상속은 합유 관계가 성립할 때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면 남은 합유자의 수대로 지분이 분할되어 다른 합유자에게 그 지분이 귀속된다.

문중(門中)이나 동창회, 교회 등을 법률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社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 총유라고 한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가입과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社員) 개개인은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분을 갖지 못하며, 단체만 총유 재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다. 단체가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사원들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과거에는 사단 규칙에 미리 정한 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원들이 동의하더라도 사단의 규칙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분열 당시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다면 사원들이 언제든지 사단의 규칙을 변경하여 사단에서 탈퇴하거나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단의 재산에 대한 처분 또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 철수가 100㎡인 토지의 1/4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철수의 지분은 토지 중 25㎡에 해당하니까 그 면적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철수가 비록 토지의 1/4 지분만을 가지고 있지만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는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철수 이외의 다른 공유자도 토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토지의 일정 부분을 특정 공유자가 항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철수가 토지 전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한다면 다른 공유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철수는 공유자 중 한 명에 불과하므로 토지 전부를 항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철수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1/2 이상의 지분권자는 철수에게 토지를 아예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분의 비율대로’라는 제한 때문이다. 이처럼 공유 관계는 공유자들 간에 사이가 좋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끝없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분이 매우 불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은 지분의 비율대로 공유물을 분할하여 분할된 땅을 단독 등기해야 비로소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공유물을 공유자들이 각자 지분대로 나누는 것을 공유물 분할이라고 한다.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원고가 무리한 분할을 청구하더라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할 수 없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분할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

* 동산: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따위이다.

* 등기: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1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하나의 물건에 대해 세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다.
- ② 부동산의 합유 관계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합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상속이 가능하다.
- ④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가진 원고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공유 재산에 대해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한 사람의 수로 지분이 균등히 나뉘진 것으로 간주한다.

1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등기가 가능하다.
- ② ㉠은 ㉡과 달리 공동 소유자들의 결합 관계에 구속력이 없다.
- ③ ㉠은 ㉡과 달리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동 소유 재산의 처분이 가능하다.
- ④ ㉡은 ㉠과 달리 구성원 개개인에게 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 ⑤ ㉡은 ㉠과 달리 구성원 개개인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휴대폰 대리점을 차리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을과 병에게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갑·을·병은 같은 금액을 공동 출자하여 사업체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점포를 구해 영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사업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정에게 지분을 넘기고 공동 사업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였다.

- ① '갑'은 점포에 대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취득할 수 없다.
- ② '병'이 '정'에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병'이 공동 사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점포 재산에 대한 분할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④ '병'이 '정'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갑'과 '을'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
- ⑤ '갑·을·병'이 사업체를 조직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는 그들이 맺고 있는 공동 소유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19. ㉢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철수는 해당 토지의 1/4 면적을 초과하여 농작물을 심을 수 없다.
- ② 철수는 해당 토지의 1/4 면적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단독 주택을 지을 수 있다.
- ③ 철수 이외의 공유자는 해당 토지 면적의 3/4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④ 철수가 해당 토지의 1/4 면적에 농작물을 심을 경우, 다른 공유자는 철수에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철수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려면 해당 토지의 1/2 이상 면적을 소유한 공유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 문맥상 의미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책을 가지리 서재에 간다.
- ② 그는 빈 깡통을 가지고 연필꽂이를 만들었다.
- ③ 그녀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 ⑤ 어제 정부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 뒤로 나는 저녁마다 물에 ㉠ 탈색제 한 알을 풀어 세수했고 저녁이면 내가 얼마나 하얗졌나 보려고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 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었다. ㉡ 내가 바라는 건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한국 사람만큼만 하얗게, 아니 노랗게 되기를 바랐다. 여름 숲의 뱀처럼, 가을 낙엽 밑의 나방처럼 나에게도 보호색이 필요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 비비충을 새로 산 남자애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지 않고, 적이 필요한 아이들의 왕따가 되지 않고, 달리기를 할 때 뒤에서 밀치고 싶은 까만 방해물로 비치지 않도록. 나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탈색제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세숫대야의 물을 거칠게 쏟아 버렸다. 고개를 들어 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탈색제가 든 비닐봉지를 수돗가에 내동댕이쳤다. 나는 뒷덜미를 잡힌 채 방으로 질질 끌려 들어가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자정이 다 되어 들어온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누크' 베이비로션을 꺼냈다. 그리고는 붉은 실핏줄이 보일 만큼 껍질이 벗겨진 내 얼굴에 **로션**을 잔뜩 발라 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으로 뺨을 아프도록 쓰다듬으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더니 잠들기 직전까지 흐느꼈다. 가끔 뜻을 알 수 없는 **네팔** 말을, 몹시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 쿤이 작업복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온다. 가슴께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걸 보니 뭔가 맛있는 거라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에게 달려가 숨긴 걸 달라고 졸라 댈다. 쿤은 얼굴을 찡그린다. 쿤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꼬물거린다. 간지럼을 잘 타는 쿤은 흐으, 흐으, 김빠진 웃음을 내뱉더니 할 수 없이 그 비밀을 펼쳐 보인다. ㉤ 흰 봉대에 감긴 손이 허공으로 불쑥 솟아오른다.

“왜 이래?”

“어제 일하다가 그만……. 다행히 손가락 세 개는 남았어.”

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다. 그는 발끝으로 돌맹이를 세계 건너간다. 찰랑, 훔날리는 ㉥ 노란 머리카락 사이로 새로 돋는 까만 머리카락이 보인다. 그는 이제 더는 염색을 하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와서 프레스에 손가락을 잘리는 미국 사람은 없을 테니.

(중략)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쳐다볼 뿐. 일곱 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에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원래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세계의 알’을 깨뜨리면서 **코끼리**의 격이 낮아져 그만 우주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는 슬쩍 내 안색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화일 뿐이야. 신이 깨뜨린 알이란 없어.” 순간 못대거리에서 미끄러져 었나간 망치가 아버지 손톱을 찼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 곳, 후미진 **공장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가늘게 떨리는 그 목소리 주인은 2호실 토야 엄마다. 모레니에 절로 세이테세, 모레니에 절로 세이테세, 날 그곳으로 데려다주세요, 날 그곳으로 데려다주세요……. 지난봄에 단속반을 피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빼어 결국 잡히고 만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 부품에 나사를 꺾어 버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눈치다. 홀둘리아 푸자토레 게노 펠레라코 헬라거리, 탈 모르넷 아게 슈두 바레크 피레아쇼크, 기도꽃을 꺾어 왜 그냥 버렸을까, 사랑하는 사람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 김재영, 「코끼리」 -

(나)

#26. 식당 - 내부(낮)

원아들이 식탁에 줄지어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거의 다 먹어 가고 있는 참이다. 다 먹은 아이들은 식판을 커다란 플라스틱 통 안에 담는다. 그릇이 가득 찬 플라스틱 통은 좀 더 나이 든 원아들이 부엌으로 나르고 있다. 진희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앞에 놓인 식판엔 손도 안 댄 채 결눈질로 주위만 살핀다.

보모: 왜 안 먹어. 너 밥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는구나? (모질게) 여기 밥 굶고 자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 고집 그만 피우고 빨리 먹어.

진희, 냅다 팔을 뻗어 **식판을 바닥으로 밀쳐** 버린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뒹구는 식판, 음식물이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진다. 원아들이 일시에 이쪽을 돌아본다. **보모**, 단단히 화가 난다.

보모: 아니 애가, 진짜! 내가 탄 건 몰라도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건 못 참는다. 이거 직접 치워. 다 치우기 전엔 못 나갈 줄 알아, 알았어?

진희, 눈도 깜짝 앓고 입을 앙다물고 있다. 보모, 혀를 차며 부엌 쪽으로 나가고, 곧이어 한 손에 행주를 들고 숙희가 다가온다.

숙희: 내가 도와줄까?

진희: …….

숙희: (행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들을 훑쳐 내며 낮은 목소리로) 넌, 여기가 니 집 안방인 줄 알아?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어리광 그만 피워.

#27. 원장실 - 내부(낮)

구 원장이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다. 책상 앞에는 진희가 고집스러운 얼굴로 서 있다.

진희: 여기 있기 싫어요.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래요.

구 원장, 지긋이 진희를 보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 위에 손가락을 올린다.

구 원장: 아빠 전화번호 알아? 난 모르는데……?

진희, 당황한 듯 잠시 아무 말이 없다. 구 원장,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진희: 난 고아가 아녜요. 엄마 아빠 없는 애들만 있는 데잖아요.

말없이 쳐다보는 구 원장.

진희: 아빠가 여행 보내 준다고 했던 말예요. 그래서 **옷도** 샀구요. 또 **신발**도 사구요. 제 옷하고 신발 주세요. 나, 갈 거예요.

구 원장: 그래, 여행할 거야. 나중에…….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응?

(중략)

#78. 행정 건물 복도 - 내부(낮)

진희, 원장실 방문 앞에 서 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는 진희. 침을 한 번 삼키고 각오한 얼굴로 다시 문을 두드린다.

#79. 원장실 - 내부(낮)

구 원장과 마주 앉은 진희, 긴 침묵이 흐르고 있다.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앉아 있던 진희,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묻는다.

진희: 정말 맞게 찾아가신 거예요?

구 원장: 틀림없어. 집 앞에 쌀가게 아줌마도 만났어. 니네 식구들 그 집에서 살았던 거 다 이야기해 줬어.

진희: …….

구 원장: 지금은 그 집에 탄 사람들이 살고 있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네.

똑바로 고개를 든 채 원장을 쳐다보고 있는 진희의 얼굴. 아무 감정도 없는 무감각한 표정이다. 그 얼굴 위에 원장의 말소리 계속 들린다.

구 원장(O.S.*): 이제는 너도 다 잊어버려야 해. 아버지는 다시 안 오셔. 절대 안 오실 거야. 넌 이 **보육원**에서 새 부모, 새 가족을 만나야 돼……. 알았지?

그러나 진희의 표정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80. 마당 - 외부(낮)

잔뜩 흐린 하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다. 탱자나무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진희, 빗물을 피해 조금씩 자리를 옮겨 앉는다. 문득 구석 자리에 오롯하게 솟아 있는 새 무덤을 발견한다. 무덤 위에는 숙희가 나뭇가지로 만들었던 작은 십자가도 꽃혀 있다. 보고 있던 진희, 십자가를 뿔더니 그걸로 무덤을 파헤친다. 이윽고 죽은 **새**가 나타난다. 끔찍한 모습으로 반쯤 부패한 새의 시체. 잠깐 이것을 내려다보다가 획 밀쳐 버린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로 마치 알 수 없는 힘에 쫓기듯 계속해서 땅을 판다.

- 이창동·우니 르콩트, 「여행자」 -

* O.S.(Off Screen): 화면 밖. A가 말할 때 카메라가 A를 촬영하지 않고, 그 말을 듣는 B를 촬영하면서 A의 음성이 화면 밖에서 들리도록 하는 기법.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계기로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 ②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통해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새롭게 드러내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종아리를 맞았다’라는 진술을 통해, (나)는 ‘식판을 바닥으로 밀쳐’ 버리는 모습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로선’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나)의 ‘옷’과 ‘신발’은 진희와의 재회를 약속하는 아버지의 징표로 쓰이고 있다.
- ③ (가)는 ‘네팔’, ‘스리랑카’ 등의 용어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출신을, (나)는 ‘보모’, ‘원장’ 등의 명칭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의 ‘코끼리’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의 ‘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진희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공장 지대’는 아버지가 처한 생활 환경을, (나)의 ‘보육원’은 가족과 떨어진 진희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피부색으로 차별받고 싶지 않은 ‘나’의 의중을 드러낸다.
- ② ㉡: ‘나’가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 ③ ㉢: 이주 노동자의 비참한 노동 현실과 아픔을 나타낸다.
- ④ ㉣: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인물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 ⑤ ㉣: 남편과 떨어져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쓸쓸한 심리를 반영한다.

24. (가)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식과의 단절된 관계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 ② 자신에게는 관대하나 타인에게는 작은 실수에도 엄격하게 행동하고 있다.
- ③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물로 자식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주변의 환경에 빨리 적응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 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엄하게 야단친 후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다.

25. (나)의 ‘#26~#80’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6은 원아들과 차별하며 중심인물을 괴롭히는 주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보육원 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27은 중심인물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작품의 제목과 연관된 대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78은 대사 없이 지시문만으로 중심인물의 행동을 제시하여 인물의 긴장된 심리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④ #79는 주변 인물의 대사보다 중심인물의 표정에 주목하여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80은 비 오는 풍경과 특정 소재를 동원하여 인물의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79에서 이어지는 중심인물의 심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26.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은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술자에 의한 사건의 진행과 인물의 심리 표현이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주관적이다. 반면 시나리오는 배우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영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제한되고 단순하며 객관적이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소설과 달리 시공간을 기준으로 장면을 나누며, 배우의 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심리 표현을 섬세히 나타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세계의 시각적 제시에 뛰어나다. 이러한 장르의 특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파악하면 문자 언어와 영상 언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 ① ㉠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름 숲의 뱀’, ‘가을 낙엽 밑의 나방’과 같이 주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데 비해 #26에서는 ‘보모, 단단히 화가 난다’와 보모의 대사를 연결하여 인물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② ㉡에서는 쿤이 걸어오는 장면으로의 전환이 이전 장면과 문단을 구분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사건이 진행되는 것에 비해 #26~#80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장면을 일일이 구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군.
- ③ ㉢에서는 걸어오는 쿤을 보며 그의 가슴께가 불룩한 이유를 맞았는 것을 숨기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는 ‘나’의 심리 표현이 구체적인 반면 #27에서는 ‘난감한 표정’, ‘고집스러운 얼굴’, ‘당황한 듯’ 등으로 인물의 심리가 단순하게 표현되고 있군.
- ④ ㉣에서는 ‘푼돈으로 연명하는 눈치’라는 식으로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서술하고 있지만 #78~#79에서는 진희의 심리를 배우의 행동과 표정에 의존하여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 세계의 시각적 제시에 어려움이 있겠군.
- ⑤ ㉣에서는 인물의 노랫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문자로 읽어야 하는 것에 비해 #80은 영상으로 재현될 때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비 내리는 소리, 땅 파는 소리 등의 음향이 가미되므로 이를 통해 문자 언어와 영상 언어의 차이를 알 수 있겠군.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원자에는 그 중심에 원자핵이 있다. 원자핵은 최소 하나의 양성자를 지닌 몇 개의 핵자로 구성되며, 원자핵의 주위에는 전자가 있다. 핵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p)와 중성자(n)를 말하는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원자핵은 양전하를 띤다. 초고온 상태에서 복수의 가벼운 원자핵이 핵반응을 통해 융합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 반응이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거운 원자핵과 융합하지 않는 자유로운 핵자가 생길 수 있다. 핵융합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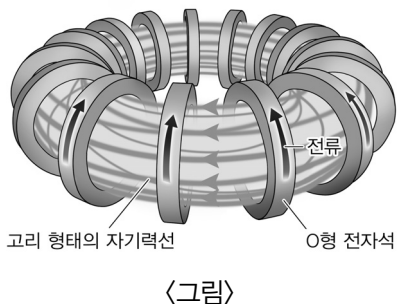
태양에서는 수소(${}^1\text{H}$)의 원자핵이 융합하여 중수소(${}^2\text{H}$) 또는 삼중수소(${}^3\text{H}$)의 원자핵이 되고,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핵이 다시 융합하여 헬륨(${}^4\text{He}$)의 원자핵이 되는 연속적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수소를 나타내는 기호 ${}^2\text{H}$ 의 경우, 숫자 2는 원자핵의 핵자 수를 합한 값인 질량수를 표시하며 숫자 1은 양성자의 수를 표시한다. 모든 핵융합 반응에서는 반응 전후의 전체 핵자 수가 변함없기 때문에 질량수가 변하지 않으며, ㉠ 핵융합 반응 후의 전하량 또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응 후의 질량은 반응 전에 비해 작아지는데 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하며, 결손된 질량은 열에너지로 ㉡ 바뀌어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핵융합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으로 열에너지가 생성되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이어진다. 예를 들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수소 핵융합 반응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헬륨의 동위 원소 ${}^3\text{He}$ 의 원자핵은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받은 에너지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데, 14.1MeV 의 에너지를 지닌 자유 중성자를 방출하고, 원자핵에서도 3.5MeV 의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안정된 상태인 헬륨(${}^4\text{He}$)이 된다. 즉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의 총량은 17.6MeV 가 되는데, 이 열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 핵융합 발전이다. 핵융합 발전은 화력 발전이나 핵분열 반응을 활용하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단위당 에너지 생산량이 많고,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

핵융합 발전에서는 $1\text{억 } ^\circ\text{C}$ 이상으로 가열된 플라스마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하여 핵융합을 발생시킨다. 플라스마는 전자와 원자핵, 이온 등이 입자로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플라스마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핵은 전자와 ㉢ 떨어져 초고속으로 충돌하여 융합한다. 그런데 같은 양전하를 띤 원자핵끼리 어떻게 전자기력에 의한 반발력인 척력을 이겨 내고 서로 접근하여 융합할 수 있을까? 이는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힘이 척력을 ㉣ 이기고 원자핵끼리 매우 근접하게 만들면 전자기력보다 강한 핵력이 원자핵들 사이에 발생하여 서로를 묶어 주기 때문이다. 핵융합 발전은 연료가 되는 원자핵을 핵융합로에 가두는 방식에 따라 자기 가둠, 중력 가둠, 관성 가둠 등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것이 자기 가둠 방식이다.

자기 가둠 방식에서는 원자핵을 고리 형태의 플라스마에 가두려고 한다. 원자핵은 자기력선에 휘감기며 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O형 전자석 여러 개를 도넛 모양으로 배치한 후에 전류를



흘리면, O형 전자석들 내부에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고리 형태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진다. 이 전자석 내부에 플라스마를 발생시키면 자기력선의 영향으로 플라스마 자체가 자기력선이 되어 원자핵은 플라스마를 따라 휘감겨 돌게 된다. 하지만 O형 전자석이 만드는 고리 형태의 플라스마는 고리의 안쪽이 바깥쪽보다 높은 밀도를 갖게 되어 원자핵이 플라스마 밖으로 누출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 가둠 방식인 토카막 방식에서는 원자핵이 외부로 누출되는 문제를 ㉤ 풀기 위해 O형 전자석이 배치된 안쪽 공간에 고리 형태의 플라스마와 수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I형 전자석을 설치한다. I형 전자석에 전류가 흐르면 플라스마와 수직 방향으로 새로운 자기력선이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자기력선이 원래의 자기력선, 즉 플라스마에 영향을 미쳐 플라스마에 뒤틀림이 생기면서 고리의 안쪽과 바깥쪽의 밀도가 균일해지게 되어, 원자핵의 누출을 ㉥ 막게 된다. 이렇게 하면 플라스마 내부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 누출 없이 일어나게 되어, 헬륨(${}^4\text{He}$)이 융합되면서 생기는 에너지로 핵융합로의 냉각수를 가열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 동위 원소: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서로 다른 원소. 양성자의 수는 같으나 중성자의 수가 다름.
* MeV: 에너지 또는 질량의 단위. $1,000,000\text{eV}=1\text{MeV}$.

2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핵융합 반응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핵융합 발전의 구현 방식을 밝히고 있다.
- ② 현대 물리학에서 수용하게 된 핵융합 방식이 정립된 과정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 ③ 하나의 물리학 이론을 중심으로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 반응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자연적인 핵융합 반응과 인공적인 핵융합 반응의 차이점을 나열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 ⑤ 기존의 핵분열 기술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28.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융합 반응 전 전체 원자핵의 질량은 반응 후에 비해 크다.
- ② 수소와 수소의 동위 원소들은 모두 한 개 이상의 중성자를 지닌다.
- ③ 핵융합 반응 후에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은 한 개 이상의 양성자를 지닌다.
- ④ 원자핵끼리 서로 융합할 때 전자기력에 의한 반발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다.
- ⑤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2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핵융합 반응 전후의 중성자의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 ② 핵융합 반응 후에 양성자가 중성자와 융합하기 때문에
- ③ 핵융합 반응 전의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무겁기 때문에
- ④ 핵융합 반응 전후에 양성자의 핵자 수가 변함없기 때문에
- ⑤ 핵융합 반응 후에 핵자와 전자의 전하량이 상쇄되기 때문에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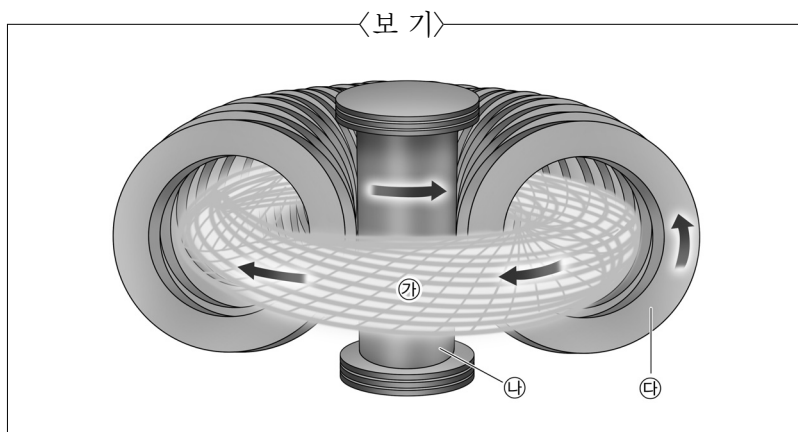
<보 기>

	반응 전	반응 후
A	중수소 + 중수소	${}^3\text{H}(1.01\text{MeV}) + \text{p}(3.02\text{MeV})$
B	중수소 + 중수소	${}^3\text{He}(0.82\text{MeV}) + \text{n}(2.45\text{MeV})$

* A와 B의 핵융합 반응은 각각 50%의 확률로 발생한다.

- ① A와 B에서 핵융합 반응을 한 가벼운 원자핵은 모두 동일하지만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은 서로 다르다.
- ② A는 B보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열에너지의 총량이 더 크다.
- ③ A는 B보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무거운 원자핵이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더 크다.
- ④ B는 A보다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 자유로운 핵자의 에너지가 더 작다.
- ⑤ B는 A보다 핵융합 전과 비교할 때 반응 후에 결손된 전체 질량이 더 크다.

3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전자, 원자핵, 이온 등이 입자의 형태로 초고속으로 날아다니고 있겠군.
- ② ㉡에서는 중수소와 삼중 수소가 융합하면서 생성해 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핵융합이 계속하여 일어나겠군.
- ③ ㉣에 전류가 흐르면 ㉡ 내부의 원자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겠군.
- ④ ㉣에서 발생하는 자기력선은 ㉣의 전류와 수직 방향으로 만들어지겠군.
- ⑤ ㉣에서 생성된 자기력선이 ㉣의 자기력선에 영향을 미쳐 ㉡에 뒤틀림이 발생하겠군.

32. 문맥상 ㉠~㉣와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전이(轉移)되어
- ② ㉡: 분리(分離)되어
- ③ ㉢: 극복(克服)하고
- ④ ㉣: 해결(解決)하기
- ⑤ ㉣: 방지(放支)하게

[33~3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A]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물리는
소소리 바람.

앞섰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 [B]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멧은 듯
새삼 듣는 빗날

] [C]

붉은 잎 잎
소란히 밟고 간다.

- 정지용, 「비」 -

(나)

그토록 흐르고도 흐를 것이 있어서 **강은 우리에게 면면한 희망으로** 흐르던가.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듯
 굽이굽이 굽이치다 끊기다
 다시 온 몸을 세차게 뒤틀던 강은 거기 **아침 햇살에 셋노란 승어가 튀어오르게도** 했었지. 무언가 다 놓쳐버리고
 문득 황황해하듯 홀로 강둑에 선 오늘,
 꼭 가뭄 때문은 아니게 강은 자꾸 야위고
 저기 하상을 가득 채운 갈대숲의
 갈대잎은 **시퍼렇게 치솟아오르며** **무어라 무어라고 마구 소리친다.** 그러니까
 우리 정녕 강길을 따라 거닐며
 그 윤기나는 머리칼 치렁치렁 날리던
 날들을 기어이. 기어이는 오지 않아서
강물에 뺏은 쓴 약의 시간들은 저기 저렇게 **새까만 암죽으로** 끊어서 강줄기를 막는
 것인가. 우리가 강으로 흐르고
 강이 우리에게로 흐르던 그 비밀한 자리에
 반짝반짝 부서지던 햇살의 조각들이여.
 삶은 강변 미루나무 잎새들의 파닥거림과
 저 모래톱에서 씹던 단물 빠진 수수깡 사이의
 이제 더는 안 들리는 물새의 노래와도 같더라.
 흐르는 강물, 큰물이라도 좀 졌으면
가슴 팍 막힌 그 무엇을 시원하게 **쏟어버리며** 흐를 강물이 시방 가르치는 건
 소소소 갈대잎 우는 소리 가득한 세월이거니
 언뜻 스치는 바람 한자락에도
 심금 다잡을 수 없는 다잡을 수 없는 떨림이여!
 오늘도 강변에 고추명석이 널리고
 작은 패랭이꽃이 흔들릴 때
 그나마 실낱 같은 흰줄기를 뚫으며 흐르는
 강물도 저렇게 그리움으로 야위었다는 것인가.

- 고재중,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 -

[D]

[E]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시어를 반복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돌 위로 드리운 그늘을 통해 날씨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B]: 물살이 갈라져 흐르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나뭇잎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 소리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D]: 의미의 분절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행의 배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발생한 괴리로 인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E]: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현재의 답답한 상황이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앞강도 야위는 이 그리움」은 작가의 생명 의식이 온전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화자는 암담한 현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강’과 ‘우리’가 생명의 교감을 이루던 지난 시절을 그리워한다. 과거에는 풍요롭게 굽이치며 흐르던 강이 현재는 갈대잎만 시퍼렇게 남기고 실낱같은 줄기로 야위어 버렸다. 아침 햇살에 튀어 오르던 승어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화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상실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속에서도, 현재의 부정적 상황이 생명의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화자는 ‘강은 / 우리에게 면면한 희망으로’ 흐른다고 말하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군.
- ② 화자는 ‘온 몸을 세차게 뒤틀던 강’이 ‘아침 햇살에 셋노란 승어가 튀어오르게도’ 했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시퍼렇게 치솟아오르며 / 무어라 무어라고 마구 소리’치는 갈대잎과 생명의 교감을 이루고 있군.
- ④ 화자는 ‘강물에 뺏은 쓴 약의 시간들이’ ‘새까만 암죽’이 되어 강줄기를 막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군.
- ⑤ 화자는 강이 ‘가슴 팍 막힌 그 무엇을 시원하게 / 쏟아버리며’ 흐르는 생명의 공간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듯 작별할 제 신관 사또 예방 비장(禮房裨將) 이 거동 잠깐 보고 방자 불러 묻는 말이,
 “저 건너 선창(船倉) 위에 청춘 남자 소년 여자 서로 잡고 못 떠나니 저 일이 웬일인고?” / 방자 여쭙되,
 “구관 정 비장과 수청 기생 애랑이 떠나려고 작별인 줄로 아뢰오.”
 배 비장 그 말 듣고 비양*하여 하는 말이,
 “참 허량한 장부로다. 친척과 부모를 멀리 떠나 천 리 밖에 내려와서, 천기(賤妓)에게 대혹(大惑)하여 저다지 체면(體面)을 손상하니, 아랫사람 보는 바 안 되었다.”
 방자 코웃음하며 하는 말이,
 “나리는 남의 말 쉽게 마오. 남녀 사이에는 영웅열사(英雄烈士) 없습시다.”
 배 비장 허세 내며 하는 말이,
 “이놈, 그러면 내가 나도 정 비장 같은 사람으로 인정(認定)하느냐? 내가 큰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佳人(絶代佳人) 경국미색(傾國美色) 두름으로 보았건만 원편 눈이라도 한 번만 꿈쩍였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하시면, 황송하오나 소인과 내기하옵시다.”
 “무슨 내기를 하라느냐?”
 “나리께옵서 상경하시기 전에 저 계집에게 눈을 아니 뜨시면 소인의 수다(數多)한 식구가 댁에 가서 드난밥*을 먹겠고, 만일 나리께서 저 계집에게 반하오시면 타신 말을 소인 주옵소서.”
 배 비장 장담하되,
 “그 일은 어렵지 않다. 말 값이 천금(千金)이나 내가 만일 지게 되면 안장 껴서 너를 주마.”
 한참 이와 같이 말할 제 구관은 인(印) 교대하고, 신관은 도임이라. 신관 사또 절차 마친 후에 각방 소임(所任) 보고 받고, 다담상 치우니 해는 벌써 서산에 떨어지고, 달은 다시 동령에서 돌아 올라, 청풍 명월 선화당에 태평기상 완연하다.
 모든 비장, 숙소 각각 정한 후에 명기 명창 서로 골라 노래와 춤 즐기는데, 배 비장은 방자와 언약 있어 울울 심사 답답하건만, 강제로 억제하고, 남 노는 것 비양한다. 여러 비장 동임(洞任)들이 배 비장에게 전갈(傳囑)하되,
 “방자야, 네 예방 나리께 가서, ‘그동안 문안 어떠하신지’ 묻고, ‘여러 날 여행에 심사(心事) 울울하실 터이니 고향 생각 너무 마옵시고, 이곳으로 회동하여 기생의 가무(歌舞)나 한 가지 들읍시다.’ 여쭙어라.”
 방자 분부 듣고 배 비장께 전갈하니 배 비장 마음에는 당기건만, 하릴없이 억제하고 방자 편에 회답하되,
 “먼저 물어 주시오니 대단 황공하오이다. 모처럼 청(請)하심에 거절함이 당돌하나, 성질이 원래 웅졸하여 기악(伎樂)은 즐기지 않으니 본인은 용서하시고, 여러 동관(同官)께서나 재미있게 노옵소서.”
 다시 하인 불러 분부하되,
 “네 만일 지금 이후로 기생들을 내 눈앞에 얼씬이라도 하게 하면 엄히 매질하리라.”
 목사 대청(大廳)에 배회하다가 이 말을 잠깐 듣고, ‘허허’ 대소(大笑)한 후, 이튿날 밝은 후에 읍중* 기생 다 부른다. 호방이 안책을 들여놓고, 기생을 부르는데 대단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기생 부르기 마친 후에, 목사도 분부한다.
 “너희 여러 기생 중에 배 비장을 혹하게 하여 웃게 하는 자 있게 되면 중상을 줄 것이니, 누가 능히 거행하겠느냐?”

그중에 애랑이 눈썹을 수그리고 붉은 입을 잠깐 열어 공손히 여쭙되,
 “소녀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거행하려 하나이다.”
 “오, 네 능히 배 비장을 훼손(毀節)시키면 정말 제주(濟州) 기생 중 인재(人才)라 하리로다.”
 애랑이 여쭙되,
 “사또 분부는 소녀의 수단대로 하오리니 시방 춘풍(春風) 좋은 때라, 사또께서 명일 한라산 꽃놀이를 하오시면 소녀 그 사이에 묘계를 얻어 배 비장으로 훼손하게 하오리다.”
 목사 허락하고 이튿날 날이 밝은 후에 산유(山遊) 거행(舉行) 차리시니, 위의(威儀)가 찬란하다. 한라산 중턱에 올라서니 벽해(碧海)는 양양하고, 대야(大野)는 망망이라, 다시 점점 올라가니 기이한 새들이 봄을 노래하여 온갖 새 울음 운다. 목사 다시 기생 불러 춘주(春酒)를 권작(勸酌)하며, 여러 비장들과 춘흥을 자랑할 제, 배 비장은 가장 청고(淸高)한 체하고 암상(岩上)에 독좌(獨坐)하여 남 노는 것 비양하고 글귀 지어 읊는 것이었다. 이때 배 비장이 글을 읊고 무로히 앉았다가 우연히 수포동(水布洞) 녹림간(綠林間)을 바라보니, 도화(桃花) 어린 곳에 붉은 입술 일미인(一美人)이 어리락 비치락 춘광(春光)을 희롱할 제, 명월궁(明月宮)에 월아(月娥) 선녀(仙女) 거니는 듯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산속에서 홀로 노니는 애랑의 행동을 몰래 훑쳐 본 배 비장은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 여자의 근본을 알고자 하지만 들을 데도 없고 물을 곳도 없어, 헛침만 삼키며 무수히 자탄(自歎)하였다.
 이러할 즈음에 비조(飛鳥) 숲으로 내려가 잘 곳을 찾아 가고, 석양이 재산(在山)이라. 목사도 여러 소속(所屬) 거느리고 회정(回程)하여 돌아갈 제, 배 비장은 뒤쳐질 마음 두고 피병으로 배 앓는다.
 “애고 배야, 애고 배야, 나 죽겠다, 애고 배야.”
 여러 비장 동임들이 눈치채고 하는 말이,
 “벌써 혹(惑)하였구나.”
 수군거리며 걸 인사로 위로하되
 “예방께서는 급체인 듯싶으니 침이나 한 대 맞으시오.”
 “아니요, 침 맞을 병 아니요. 좀 진정하면 낫겠소.”
 여러 비장들이 웃음을 참고 방자 불러 하는 말이,
 “예방 나리 병환이 본디 앓던 병환이라 하시니 진정하여 잘 모시고 오너라.”
 귓속말하고, 또 배 비장더러 하는 말이,
 “이 연유로 사또께 잘 여쭙 것이니 마음 놓고 진정하다가 오시오.”
 배 비장 심중에 대단 환희(歡喜)하여,
 “여러분 동관께서 이처럼 염려하시니 감사 만만하거니와, 아무쪼록 사또께 미안하지 아니 하도록 잘 여쭙 주시기를 바라오. 애고 애고, 배야.”

- 작자 미상, 「배비장전(裨將傳)」 -

* 비양: 알미운 태도로 빈정거림.
 * 드난밥: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며 얻어먹는 밥.
 * 읍중: 읍내.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신분 차이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②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나열하여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내면과 다른 인물의 행동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3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관 사또’는 도입 과정에서 수고한 ‘여러 비장’들을 위하여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하러 간다.
- ② ‘애랑’은 선창 위에서 구관 ‘정 비장’과 작별을 하지만 서로 잡은 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 ③ ‘방자’는 ‘여러 비장’의 분부대로 ‘배 비장’에게 문안을 묻고 가무를 즐기자는 권유를 전달한다.
- ④ ‘배 비장’은 한라산 산행에서 혼자 바위에 앉아 ‘여러 비장’들이 춘흥을 즐기며 노는 것을 비판한다.
- ⑤ ‘여러 비장’들은 도입 첫날에 ‘배 비장’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가 ‘방자’와의 내기 때문임을 알지 못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배비장전」에 영향을 끼친 ‘남성 휘절 설화’는 어떤 남성이 남의 책략에 속아 평소 지켜왔거나 지키고자 하는 금욕적 지조를 스스로 휘절함으로써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이다. 이 설화에는 휘절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을 휘절시키기 위해 책략을 모의하는 휘절 모의자들과 실질적으로 책략을 실행하여 주인공을 곤란에 빠트리는 휘절 담당자가 등장한다.

- ① ‘배 비장’이 ‘천기에게 대혹’된 관리를 비판하며, ‘절대가인’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금욕적 지조를 피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방자’가 ‘배 비장’에게 내기를 걸면서 ‘저 계집에게 눈을 아니 뜨시면’ 자신의 식구들이 ‘드난밥’을 먹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휘절 모의에서 나온 책략으로 볼 수 있군.
- ③ 기생을 멀리하겠다는 ‘배 비장’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을 휘절’시키기 위해 ‘읍중 기생 다’ 불러들여 ‘중상’을 제안하는 ‘신관 사또’는 휘절 모의자로 볼 수 있군.
- ④ ‘신관 사또’의 명을 받아들여 ‘배 비장’의 마음을 빼앗을 ‘묘계’를 내어 산속에서 혼자 ‘춘광을 희롱’하는 ‘애랑’은 주인공을 곤란에 빠트리는 휘절 담당자로 볼 수 있군.
- ⑤ ‘배 비장’이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긴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피병으로 배 앓는’ 제하는 ‘배 비장’의 의도를 모르는 척하는 ‘여러 비장’들은 휘절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국 시대의 사상가인 한비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으로 나날이 쇠퇴해 가는 한나라의 번영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 그는 부국강병을 위해 임금에게 많은 간언을 하였으나 신하들의 이간질 때문에 뜻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어떻게 하면 신하를 잘 통제하여 임금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하고, 세(勢)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세는 임금의 권력을 뜻하는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힘에 해당한다. 그는 임금의 세치(勢治)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法)과 술(術)을 언급하였다.

법은 ‘포상(褒賞)과 주벌(誅罰)’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한비는 일을 잘한 신하에게는 상을 주고 일을 못한 신하에게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이 신하를 억누르기 위한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었다. 임금이 상벌을 내리는 권한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비는 이를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임금이 스스로 상과 벌을 사용하면 여러 신하들이 임금을 두려워하며 오로지 임금의 뜻에만 따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은 반드시 위해를 입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한 임금이 상과 벌을 혼용하되 상보다는 벌을 중시하여 신하에게 사랑보다는 공포와 위협을 주는 것이 세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술은 법을 적용하는 기술 또는 방법을 일컫는다. 우선 한비는 임금이 상과 벌을 내릴 때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형명참동(形名參同)’이다. 이는 신하가 자신의 직분[名]을 그대로 이행하면[形] 상을 주지만,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분 이상의 일을 달성하면 벌을 준다는 것이다. 보통은 신하가 주어진 직분 이상의 일을 달성했다면 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한비는 ㉠ 이런 경우에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들이 미리 작은 말을 해 두고 큰 성과를 올림으로써 임금에게 상을 받으려 한다면 그로부터 오는 해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비는 또 신하가 마음에 든다고 임금이 마땅한 명분 없이 상을 주거나 불쌍하다고 벌을 줄이면 나라가 무질서해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임금이 엄격하게 상벌을 내리고 있더라도 신하들이 임금의 속마음을 미리 간파한다면 신상필벌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하들은 교활하기 때문에 임금의 속마음을 미리 알아차리면 환심을 사려고 아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금의 고유한 권한을 자신들에게 이롭도록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비는 여기에 반드시 무위(無爲)의 통치가 더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뜻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임금이 속내를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임금이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는다면 신하들은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으므로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자연히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하게 된다.

이처럼 한비는 상벌과 무위가 임금이 세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또 임금이 법과 술에 능통하여 신하들을 휘어잡을 때 비로소 무불위(無不爲), 즉 ‘질서를 이루지 않음이 없음’을 이루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39.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금의 세를 얻기 위해서는 상과 벌을 혼용하면서 벌보다는 상을 중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② 신하들이 임금에게 상을 받기 위해 작은 말을 해 두고 큰 성과를 올리는 것은 해가 크므로 벌을 받는 이유가 된다.
- ③ 임금이 상벌을 내릴 때에는 객관적 기준을 갖고 행해야 하며 마땅한 명분 없이 행하게 되면 나라가 무질서해진다.
- ④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내를 신하들이 알 수 없을 때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본분에 맞게 행동하게 된다.
- ⑤ 임금이 상벌과 무위를 바탕으로 법과 술에 능통해야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다.

40. 윗글에서 설명한 한비의 입장에서 <보기>의 ㉠,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제나라 재상 전상(田常)은 임금에게 말하기를 “신하들에게 직위를 주고 녹봉을 베푸는 일은 무릇 그들의 재능을 살피 성과에 맞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를 잘 아는 제게 맡겨 주시면 문제없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전상이 일을 잘하였으므로 ㉠ 임금은 이를 허락하였다.
- 송나라 재상 자한(子罕)은 임금에게 말하기를 “대개 칭찬을 하고 물건을 주는 것을 신하들은 기뻐하는 것이니 임금께서 직접 행하십시오. 죽이고 죄를 주는 것은 신하들이 싫어하는 것이니 이는 신이 맡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자한의 건의를 들은 ㉡ 송 임금은 이를 흡족하게 받아들였다.

- ① ㉠은 벌의 엄중한 집행에, ㉡는 상의 엄중한 집행에 더 집중하게 됨으로써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 ② ㉠은 전상에게 상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는 자한에게 벌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두 임금 다 위해를 입을 것이다.
- ③ ㉠은 벌의 권한만 쓰게 됨으로써 신하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는 상의 권한만 쓰게 됨으로써 신하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 ④ ㉠은 상의 권한을 가져간 전상의 개입으로 왕권이 더 약화될 것임에 비해, ㉡는 벌의 권한을 가져간 자한의 도움으로 왕권이 더 강화될 것이다.
- ⑤ ㉠과 ㉡는 둘 다 재상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여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41. ㉠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월나라 임금이 용맹한 사람을 좋아하자 월나라에는 문관보다 무관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무관 중에는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잇달아 나왔다.
- ② 위나라의 임금은 신하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보상보다 형법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그는 사랑보다는 공포가, 칭찬보다는 위협이 신하들을 통제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알고 있었다.
- ③ 한나라 임금이 입맛이 까다로웠으나 음식 담당 관리가 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임금이 흡족해했다. 어느 날 임금이 병으로 드러눕자 그는 약 담당 관리를 대신해 임금의 입맛에 맞는 탕약을 만들어 바쳤다.
- ④ 진나라에 흉년이 들자 한 신하가 임금에게 굶주린 신하들을 위해 궁궐에서 나는 채소와 열매를 나누어 줄 것을 청했으나 임금은 공이 없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통치를 어지럽히는 것이라 대답하며 거절했다.
- ⑤ 조나라 임금은 신하들의 직계를 조정하는 것을 앞두고 한 신하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신하는 임금의 의중을 듣고 그에 맞춰 천거하고자 했으나 임금의 뜻을 알 수 없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두려움을 느꼈다.

42. 윗글의 [무위]와 <보기>의 [무위]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노자가 말한 [무위]란 인간이 자연 본성에 그대로 따름을 뜻한다. 임금이 나라를 잘 통치해도 그것은 유위의 범주에 있는 것이므로 노자는 이를 통해 질서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세를 약화하고 백성에게 자율권을 일임할 때 진정한 질서를 이루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백성의 자율에 의해 질서가 이루어지는 까닭을 그는 간명하게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말했는데 그에게 진정한 통치란 임금의 무위를 통해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질서를 이루지 않음이 없음’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 ① 한비가 무위의 적용 대상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다면 노자는 무위의 적용 대상을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군.
- ② 한비의 무위가 임금의 권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노자의 무위는 임금의 권력을 가급적 약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군.
- ③ 한비의 무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의도된 계산이 들어 있다면 노자의 무위는 이와 달리 ‘자연히 그러함’에 따르는 것이군.
- ④ 한비와 노자는 모두 진정한 질서를 이루어 나라를 번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무위의 개념을 언급했군.
- ⑤ 한비와 노자는 모두 무위를 통해 ‘질서를 이루지 않음이 없음’을 궁극적으로 실현할 때 비로소 임금이 필요 없는 자율적 통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엇지 삼긴 몸이 이대도록 우활(迂闊)* 혼고
 우활도 우활홀샤 그레도록 우활홀샤
 이바 벗님네야 우활한 말 들어보소
 이내 저머신 제 우활호미 그지업서
 이 몸 삼겨나미 금수(禽獸)에 다르므로
 애친경형(愛親敬兄)* 과 충군제장(忠君弟長)* 을 내 분수로 헤엿더니
 혼 일도 못 이루고 세월(歲月)이 느껴지니
 평생(平生) 우활은 날 따라 기러간다
 아춤이 부족(不足) 혼들 저녁을 근심홀며
흔 칸 초가집에 비 식는 줄 아뉓던가 [A]
 누더기 옷이라고 붓쓰러움 어이 알며
 어리고 미친 말이 늙 미움 받을 줄 아뉓던가
 우활도 우활홀샤 그레도록 우활홀샤
 춘산(春山)의 곳을 보고 도라올 줄 어이 알며
 하정(夏亭)의 즈음 드리 꿈 쉴 줄 어이 알며
 추천(秋天)의 들 마자 밤 드는 줄 어이 알며
 동설(冬雪)에 시흥(詩興) 계워 차움을 어이 알리
 사시가경(四時佳景)을 아므란 줄 모로라
 말로(末路)에 버린 몸이 므스 일을 염려홀고
인간시비(人間是非) 듯도 보도 못 흥거든 [B]
이 몸의 처지에 백년(百年)을 근심홀가
 우활도 우활홀샤 그레도록 우활홀샤
아춤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홀디 [C]
 하늘삼긴 우활을 내 설마 어이홀리
 그레도 애뉓도다 고쳐 안자 싱각홀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 하고 만타
 일백(一白) 번 다시 죽어 ① 벋사람 되고 싶네
 태평성대(太平聖代) 잠간이나 노라보면
 요순(堯舜)의 일월(日月)을 저그나 쥘 것을
 순박한 풍속이 이미 머니 투박(儉薄)이 다 되거다
 한만(汗漫) 혼 정회(情懷)을 놀드려 니르려노
 태산(泰山)의 올라가 세상이나 다 바라보고 싶네
성현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 보고 싶네 [D]
주공(周公)은 어디 가고 꿈의도 뵈잔노고
 매우 심흔 나의 삶을 슬퍼한들 어이홀리
 만리(萬里)에 눈 쓰고 태고(太古)에 뵈즐 두니
 우활혼 심흔(心魂)이 가고 아니 오는구나
 인간(人間)의 호자 썩여 놀드려 말을 홀고
 축타(祝鮫)* 의 영언(佞言)을 이제 배워 어이홀며
 송조(宋朝)* 의 미색(美色)을 얼근 낮에 잘 홀런가
 산에 나는 **풀과 열매** 어디 어더머그러노 [E]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다 우활의 타시로다
 이리 헤오 저리 헤오 다시 헤니
 일생사업(一生事業)이 우활 아닌 일 업뇌와라
 이 우활 거느리고 백년을 어이홀리
 아희야 ㉠ 잔 ㄱ득 부어라 취(醉)홀여 내 우활 닛다

- 정훈, 「우활가(迂闊歌)」 -

- *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 * 애친경형: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
- * 충군제장: 임금께 충성하고 웃어른을 공경함.
- * 축타: 중국 위나라 대부로 말씀씨가 뛰어난.
- * 송조: 중국 송나라의 공자(公子)로 뛰어난 외모를 지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청자를 밝히며 화자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작품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그려 내고 있다.
- ⑤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궁핍한 처지의 화자가 각박해진 세상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③ ㉠은 화자가 현재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로, ㉡은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내는 소재로,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를,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활가」에서 작가는 초야에 묻혀 지내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어리석음, 즉 ‘우활’ 때문이라고 탄식하면서도 그 삶을 받아들이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현실과 다른 이상을 추구하는 자신의 고고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우활’은 외적으로는 화자의 ‘어리석음’을, 내적으로는 화자의 ‘고고함’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A]: 외적으로는 ‘흔 칸 초가집에 비 식는 줄’ 모르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토로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청빈함을 추구하는 자신의 고고함을 드러내고 있군.
- ② [B]: ‘인간시비’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몸의 처지에 백년을 근심’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춤의 누잇고 나죄도 그러홀며’ 근심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은 하늘이 정해 준 운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는 순응적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D]: ‘성현 살던 세상’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상을 추구하는 삶의 고고함을 드러내며 ‘주공’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군.
- ⑤ [E]: 초야에 묻혀 ‘풀과 열매’를 얻어먹을 것을 근심하는 자신의 삶을 제시하며 ‘미움받고 사랑받지 못함이’ 모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탄식하고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